COMPANY
UPDATE

2025. 11. 21

Innovation팀
서근희 팀장, Ph.D.
keunhee.seo@samsung.com

신수한 Research Associate
shn.shin@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에임드바이오 (비상장)

스크리닝 기술로 키운 ADC 파이프라인이 주목받는 시점

- 환자 데이터 활용한 항체 스크리닝 기술 보유, 최적화된 항체 기반으로 ADC 파이프라인 다변화. 글로벌 밸류체인과의 협업으로 개발 속도 가속화.
- 지난 2년간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 기반 기술료 유입으로 재무적 안정성 마련 및 신규 글로벌 파트너링 가능성으로 모멘텀 확보.

WHAT'S THE STORY?

기업 개요: 에임드바이오는 2018년 삼성서울병원에서 스핀오프하여 설립, ADC 기반 항암제를 개발하는 바이오텍. ADC 개발 플랫폼 P-ADC™ 및 파이프라인 보유. 전임상 단계 ADC 3건 누적 3조원 규모 기술 이전. 2024년 바이오헤이븐(BHVN US)에 AMB302(FGFR3 ADC) 기술 이전, 2025년 6월 SK플라즈마와 AMB303 (ROR1 ADC) 공동 개발 및 기술 이전 계약, 10월 베링거 인겔하임과 고형암 타깃 ADC에 대해 기술 이전(1.4조원). 자체 개발한 페이로드 2종(AMB401, AMB402)를 기반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ADC 툴박스 프로그램 공동 개발 중, ADC 생산 역량 확보.

플랫폼 및 주요 파이프라인

- **P-ADC™ 플랫폼:** 환자 유래 모델을 기반으로 타깃 발현 모델 선정부터 성공적인 에셋 개발까지 약물 개발 전주기를 통합하는 플랫폼. 2018년 삼성서울병원 특허 및 기술 도입, 2020년 오스트리아 CBmed와 정밀의료 공동연구 계약 체결로 다양한 인종의 환자 데이터 활용 가능. 실제 환자에서 유래한 조직을 배양, 약물 반응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타깃 선택과 항체 선별 단계에서 성공률을 높임.
- **AMB302(FGFR3 ADC/Topo-I)**: 방광암, 두경부암 등 고형암에서 전임상 단계에서 효능 확인. GeneQuantum의 Topo-I 억제제와 안전성 높은 링커를 사용, DAR4 구조로 독성 프로파일 양호, 경쟁 제품 대비 우월한 데이터 확보 및 더 넓은 환자군 적용 가능, 향후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방광암 분야 주목. 작년 美 IND 이후 전임상 단계에서 바이오헤이븐으로 기술 이전, 그러나 최근 바이오헤이븐의 파이프라인 전략적 재배치 발표로 개발 일정 변동 가능한 점은 리스크로 작용.

공모 개요: 희망 공모가 밴드 9,000원-11,000원(공모가 기준 기업 가치는 5,787억원-7,073억원). 상장 직후 유통 가능 주식수 15,485,101주(24.14%), 오버행은 2개월 1,060만 주(16.5%), 6개월 88만 주(1.4%), 1년 1,180만 주(18.4%).

재무 현황: 증권신고서(3Q25) 기준 유동비율 3,291.2%, 부채 비율 3.5%, 차입금은 없어 재무 상태 양호. 최근 2년간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기반으로 현금성자산 약 800억원(단기금융상품 포함) 확보. 공모 자금 약 700억원과 베링거인겔하임의 계약금 유입까지 감안하면 연말에는 1,500-1,800억원 수준의 현금 보유 가능. 작년 영업비용 약 200억원 지출하였으나, 향후 R&D 전임상뿐 아니라 임상 단계까지 진행 계획, 연간 최대 400억원 수준의 R&D 비용 지출 가능.

(다음 페이지에 계속)

환자 유래 모델로 차별화된 ADC 개발 전주기 통합

글로벌 밸류체인 협업으로 기술 검증 가능

P-ADC™ 플랫폼으로 ADC 파이프라인 다변화. 이미 기술 이전 누적 3조원 달성.
글로벌 제약사의 ADC 향한 관심 증대되는 가운데, 향후 에임드바이오의 플랫폼 기술력 검증 및 추가 기술 이전 가능.

에임드바이오는 ADC 개발 바이오텍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2018년 스핀오프하여 설립되었다. 다양한 글로벌 제약 밸류체인과의 협업과 함께, 실제 환자 유래 모델을 통한 ADC 타깃 발굴, 후보 항체 선정, 교차 검증 후 ADC 후보 물질 선정까지의 전 주기를 통합하는 시스템인 P-ADC™을 갖추었으며, 다양한 ADC 파이프라인을 확보 중에 있다.

기술 이전으로 2024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2025년 3분기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약 839억원을 보유, 공모 자금까지 더해지면 약 1,500억원의 자금을 보유할 것으로 추정된다.

파이프라인의 임상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나, 차입금이 없는 양호한 재무 상태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후보 물질 발굴 및 전임상, 임상 진행에 따라 향후 기술 이전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

AMB302, AMB303, 그리고 미공개 파이프라인의 긍정적 임상 결과 도출 시 플랫폼의 기술력 검증까지 이루어져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임드바이오 주요 파이프라인 및 플랫폼

파이프라인	모달리티	적응증	타깃	임상 현황	파트너
AMB302	ADC	방광암, 두경부암, 교모세포종	FGFR3	임상 1상 IND 제출 완료	바이오헤이븐
AMB303	ADC	고형암	ROR1	전임상	SK플라즈마
ODS025	ADC	고형암	미공개	전임상	베링거 잉겔하임
PP1	bsADC	고형암	미공개	후보 물질 선정	
PP2	bsADC	고형암	미공개	후보 물질 선정	
AMB001	mAb	아토피, 치매	CD200R1	후보 물질 선정	
플랫폼	**구성요소**	**적응증**	**분류**	**현황**	**파트너**
AMB401	페이로드	고형암	듀오카마이신	최적화	삼성바이오로직스
AMB402	페이로드	고형암	캠토테신	적용 (AMB303)	삼성바이오로직스

자료: DART, 에임드바이오, 삼성증권

투자포인트

P-ADC™

에임드바이오의 P-ADC™은 약물개발 전주기 통합 시스템으로, 실제 환자 샘플을 통해 이루어 진다는 차별점이 있다. 에임드바이오는 삼성서울병원 스핀오프 기업인 만큼 2018년 설립과 함께 삼성서울병원의 특허와 기술을 도입했고, 2020년에는 오스트리아의 바이오마커 연구 센터인 CBMed와의 정밀의료 공동연구 계약 체결을 통해 아시아뿐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환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P-ADC™:** 우선 실제 환자 샘플을 통해 항원이 어떻게 발현하는지 패턴을 확인, 타깃 발현 모델을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PDC(Patients-Derived Cell, 환자 유래세포)와 PDX(Patients-Derived Xenograft, 환자 유래 동물 모델)를 활용한다. 이후 환자 유래 모델을 기반으로 신규 항체를 개발, 효능 평가 및 엔지니어링 과정을 거쳐 후보 항체를 선정한다. DAR(항체당 약물 결합비) 조절 및 페이로드 계열 선택, 항체 결합 친화도를 최적화하여 정교하게 내/외부 모델에서 PDC/PDX를 활용해 교차 검증한 뒤, ADC 후보 물질을 선정한다.
- **환자 유래 모델 기반 장점:** 실제 환자 샘플을 확보하여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인공적으로 재조합한 단백질만으로 항체를 스크리닝 하던 한계를 벗어나, 생체와 가까운 결합력 및 세포 내 흡수 성능을 가진 항체를 확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임상 단계 전환 시 성공률이 높을 수 있으며, 상장 이후 공격적인 R&D 진행에 따라 더욱 다양한 유망 타깃 발굴 및 후보 물질 도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 **플랫폼 활용한 파이프라인:** AMB302의 경우 P-ADC™ 과정을 통해 환자 유래 세포 기반, 완전 인간 IgG1 항-FGFR 항체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페이로드는 중국의 GeneQuantum의 Topo-I 계열 페이로드를 사용하였다. AMB303 또한 환자 유래 세포 기반, 완전 인간 IgG1 항-ROR1 항체를 확보하였으며, 페이로드는 자체 개발한 신규 Topo-I 저해제인 AMB402를 활용하였다.

AMB302(FGFR3 타깃 ADC/Topo-I)

AMB302는 이미 효과가 입증된 FGFR3 타깃과 중국의 GeneQuantum의 Topo-I 페이로드, 안전성 높은 링커를 사용했다. 기존 치료제 대비 유효성과 안전성 개선, 그리고 사용 가능한 환자군을 넓혀 방광암의 미충족 의료 수요를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

- **검증이 완료된 FGFR3 타깃:** AMB302가 타깃하는 FGFR3는 유효성, 안전성이 이미 입증된 타깃으로, 방광암, 자궁경부암, 교모세포종 등에서 선택적으로 과발현되는 단백질이다. 또한 FGFR3 타깃 ADC는 현재 개발되고 있는 경쟁 약물이 없는 상태이다. 현재 승인받은 FGFR3 타깃 약물은 ADC가 아닌 저분자 약물로, 존슨앤드존슨(JNJ US)의 Balversa(pan-FGFR 저해제)가 유일하다.

  과거 FGFR3 타깃 ADC를 개발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일라이 릴리는 DM4 페이로드를 사용하여 LY3076226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임상 1상 단계에서 객관적 반응을 보인 환자는 0%였으며, 파이프라인 우선순위 조정으로 해당 파이프라인 개발을 중단하였다.

  이후 일라이 릴리는 FGFR3만을 타깃하는 저분자 약물인 LY3866288 (LOXO-435) 임상을 진행, 지난 2월 고형암 임상 1상 초기결과에서 Balversa에 비해 FGFR3 선택성이 높고, FGFR1/2 억제에 따른 부작용 감소, off-target 독성을 낮췄다는 긍정적 결과를 도출했다.
- **방광암 치료의 패러다임 전환?:** 현재 방광암 1차 치료제로는 Padcev(Nectin-4 ADC/MMAE)와 면역항암제인 Keytruda 병용 요법이 널리 쓰이고 있다. 이 병용 요법은 화학요법보다 ORR, mOS 등 효능은 개선되었으나, 독성으로 인해 부작용 발생률이 높아 안전성이 낮다. AMB302는 1차 치료제와 MED(Minimal Effective Dose, 최소유효용량)는 유사한 수준, HNSTD(Highest Non-Severely Toxic Dose, 비중증독성 최대용량)은 약 12배 높아, 양호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보했다.

2차 치료제로는 앞서 언급한 Balversa가 널리 쓰이고 있다. Balversa는 특정 FGFR3 mutation 환자 대상으로만 투여가 가능하여, 투여 가능 환자의 8%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AMB302는 전체 FGFR3 양성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가 가능해, 더 넓은 환자군의 의료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

AMB302는 전임상 효능 평가 결과에서 높은 생명 연장 개선을 보여주었는데, 인간 FGFR3 발현 마우스 종양 모델에서 대조군 중간 생존율 15일, AMB302 단독으로는 107% 개선(31일), 면역항암제(aPD-L1) 병용 시 300% 이상(63일 이상)이 개선되었다.

향후 AMB302가 기존 치료제 대비 내성, 효능, 안전성 등을 어느정도 개선하는지 여부에 따라 방광암, 나아가 고형암 전반에서 FGFR3 타깃 First-in-Class ADC로서 역할할 수 있을지 판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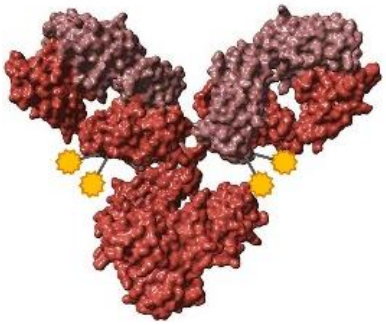
- **리스크:** 임상 개발을 맡고 있는 파트너사인 바이오헤이븐은 지난 11월 Troriluzole FDA 승인 거절 이후 R&D 비용 감축을 진행, 후기 임상이 아닌 프로그램은 지연 또는 중단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AMB302는 이제 임상 1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파트너사의 파이프라인 개발의 전략적 재배치에 영향받을 수 있다. 에임드바이오 측은 개발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언급하였으나, 개발 일정 변동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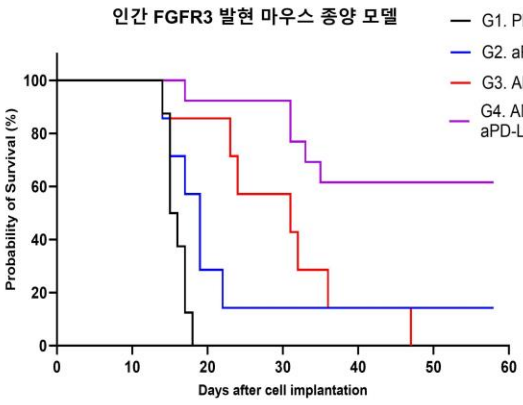
FGFR3 타깃 약물 개발 현황

약명	기업	종류	기전	적응증	임상
LY3076226	일라이 릴리	ADC	FGFR3 타깃, DM4 페이로드	FGFR3 변이/융합 등의 이상(alt) 보유 고형암(요로상피암)	P1 중단 (NCT02529553)
Balversa	얀센 (존슨앤드존슨)	Small Molecule	pan-FGFR 타깃	FGFR3 또는 FGFR2 이상 보유 국소진행성/ 전이성 요로상피암, 이전 치료 후 2차 치료	**2019년 가속 승인**
LY3866288 (LOXO-435)	일라이 릴리	Small Molecule	FGFR3 타깃	FGFR3 변이/융합 진행성 고형암(요로상피암)	P1 (FORAGER-1) 진행 중

자료: clinicaltrials.gov, 에임드바이오, 삼성증권

AMB302 구조 및 전임상 결과





Group	% Increased Life Span (ILS)	Median survival (days)
G1	-	15
G2	27 %	19
G3	107 %	31
G4	> 300 %	> 63

* % Increased Life Span (생존 연장율)
* Median survival (중간 생존기간)

자료: 에임드바이오, 삼성증권

AMB303(ROR1 타깃 ADC/Topo-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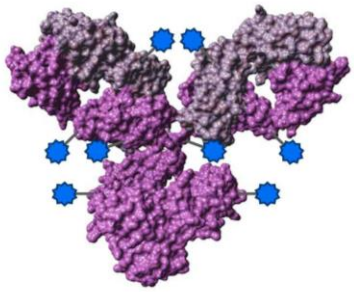
AMB303은 에임드바이오의 자체 인하우스 항체-링커-페이로드로 이루어진 ADC로, 지난 5월 SK플라즈마와 공동 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AM303의 타깃인 ROR1은 고형암에서 혈액암까지 다양한 암종에서 과발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임상에서 고형암에 대해 의미 있는 효능을 보인 ROR1 ADC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머크 앤 코(MRK US)의 MK-2140의 경우, ASCO 2025에서 발표한 임상 2상 결과에 따르면 혈액암 중 하나인 DLBCL(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 대상 ORR 100%, 완전관해 비율은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상 반응 발생률은 98%, 3등급 이상 부작용은 63%가 나타났다. 리가켐바이오-에이비엘바이오와 씨스톤의 LCB71/CS5001 또한 초고효력 세포독성 약물인 PBD 페이로드를 사용, 임상 1a/1b상에서 ORR 76.9%, 3등급 이상 부작용 비율 45.5%을 보였다.

반면 AMB303은 유방암과 폐암 PDX 모델에서 기존 경쟁물질 대비 종양억제 효과(TGI)가 3배 이상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영장류 예비 독성 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다.

향후 AMB303이 혈액암이 아닌 고형암에서 우수한 효능 및 적은 부작용 데이터를 보여준다면, 에임드바이오의 P-ADC™ 플랫폼 기술 검증과 함께 자체 개발 Topo-I 페이로드의 잠재력에 대해 평가가 가능하다.

AMB303 구조



자료: 에임드바이오, 삼성증권

기술 이전 현황 및 향후 전략

에임드바이오는 현시점 기준 누적 약 3조원 규모의 딜을 체결했다. 2024년 바이오헤이븐에 AMB302 (FGFR3 ADC), 5월 SK플라즈마에 AMB303(ROR1 ADC), 10월 베링거 잉겔하임에 고형암 타깃 미공개 ADC에 대해 기술수출을 완료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체 개발 페이로드를 기반으로 ADC 툴박스 또한 공동 개발 중에 있다.

향후 전임상뿐 아니라 임상 단계까지 밸류를 높여 기술 이전하는 등 적극적인 R&D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 자금에 더해 기술 수출을 완료한 AMB302, AMB303과 미공개 파이프라인 등 계약금, 임상 진입에 따른 마일스톤 유입 등으로 연말 기준 약 1,500억-1,800억원 수준의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제약사의 잇따른 특허 만료로 M&A, 라이선스 딜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추가적인 L/O 가능성도 열려 있다. 향후 파이프라인의 임상 결과에 따라 플랫폼 기술의 유효성과 후보 물질 발굴 능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며 변화할 기업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공모 개요

구분	내용
상장 시장	KOSDAQ
공모 주식 수	6,430,000 (신주 100%)
공모 주식 배정 내역	일반 청약자 (25-30%), 기관투자자 (70-75%),
희망 공모가 밴드	9,000원~11,000원
공모 예정 금액*	579억원~707억원
예상 시가총액*	5,774억원~7,057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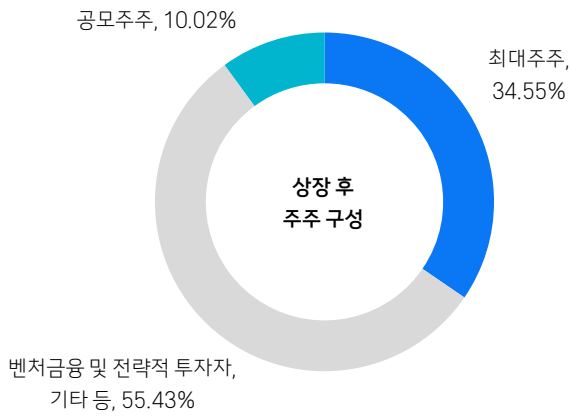
참고: * 희망 공모가 밴드 기준
자료: Dart, 삼성증권 정리

상장 일정

구분	일자
증권신고서 제출일	2025년 11월 17일
수요 예측일	2025년 11월 12일 ~ 11월 18일
청약 기일	2025년 11월 21일 ~ 24일
납입 기일	2025년 11월 26일
상장일(예정)	2025년 12월 3일

자료: Dart, 삼성증권 정리

주주 구성



자료: Dart, 삼성증권

공모 자금 활용 계획

구분	사용용도	사용금액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구개발자금	파이프라인 전임상 비용	9,422	-	-	-	9,422
	후속 파이프라인 전임상 비용	3,207	12,357	5,384	10,789	31,737
	파이프라인 임상 비용	679	2,580	2,436	299	5,994
	신규플랫폼 개발비	1,943	4,757	1,876	-	8,576
합계		15,250	19,694	9,696	11,088	55,729

참고: 공모가 밴드 하단 기준
자료: Dart, 삼성증권

공모가 산정 밸류에이션

구분	내용	비고
2029년 추정 순이익 (백만원)	87,412	
연 할인율 (%)	15.0	
적용 당기순이익	46,461	2029년 추정 순이익의 2025년 반기말 현재 가치
적용 주식 수 (주)*	66,581,193	
적용 주당 순이익	698	
적용 PER	22.2x	대웅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삼진제약, HK이노엔
주당 평가 가액 (원)	15,483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	41.9%~29.0%	
희망 공모 가액 밴드	9,000-11,000원	
확정 주당 공모 가액	미정	

참고: 적용 주식 수는 기 발행 보통주식 수, 주식 매수선택권, 공모 신주발행 주식 수, 신주인수권을 합산
자료: Dart, 삼성증권

에임드바이오: 주요 연혁

시기	내용
2018년	에임드바이오 설립 삼성서울병원 특허 및 기술 도입
2019년	연구소 개소
2020년	Cbmed와 정밀의료 공동연구 계약 체결
2021년	AMB302 후보 물질 KDDF 선정
2022년	AMB302 GeneQuantum 공동 개발 계약 체결
2023년	삼성라이프사이언스펀드로부터 국내 투자 최초 유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ADC Toolbox 공동 개발 AMB302 비임상 KDDF 과제 선정
2024년	AMB302 FDA, 식약처 IND 승인 AMB302 바이오헤이븐 L/O
2025년	AMB303 SK플라즈마 공동 개발 및 L/O Cbmed와 정밀의료기술 L/O 계약 체결 베링거 잉겔하임과 미공개 ADC L/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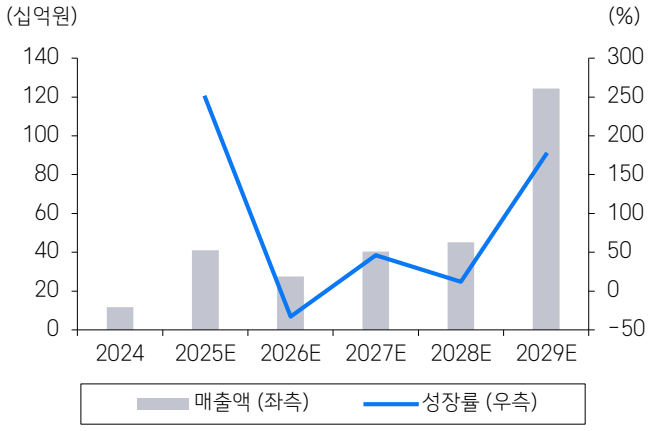
자료: 에임드바이오, 삼성증권

에임드바이오: 주요 인력

인력	직책	주요 학력 및 경력
남도현	의장/CTO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사/의학박사 미국 엠디앤더슨 암센터 박사후 연구원 보건복지부 지정 선도형 남치암연구사업단 사업단장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허남구	CEO	삼성서울병원 책임연구원 SBP Medical Discovery Institute, 박사후 연구원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학사/석사/박사
민병귀	연구소장	성균관대학교 융합의과학과 박사
김태경	COO	제일병원 행정부원장, 경영본부장 분당차병원 총무부장
허문영	CFO/재무팀장	한국공인회계사(CPA)
안선희	사업개발팀장/이사	성균관대학교 융합의과학과 석사 미시건대학교 Ann Arbor 분자생물학 석사
정원식	전임상 개발팀장/이사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 학사/석사/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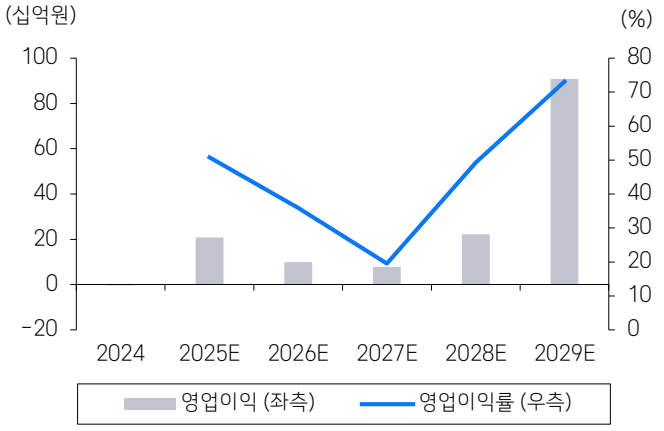
자료: 에임드바이오, 삼성증권

에임드바이오: 매출액 및 성장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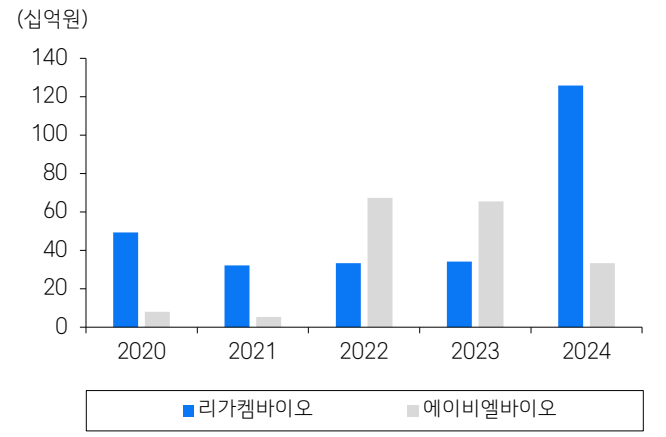
자료: 에임드바이오(증권신고서), 삼성증권

에임드바이오: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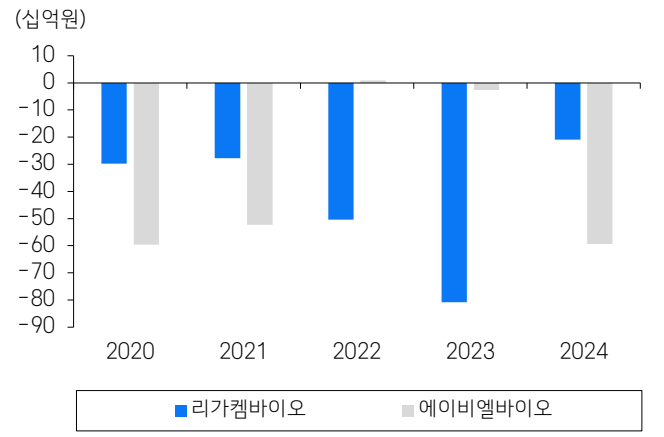
자료: 에임드바이오(증권신고서), 삼성증권

경쟁사 매출액 및 성장률 추이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경쟁사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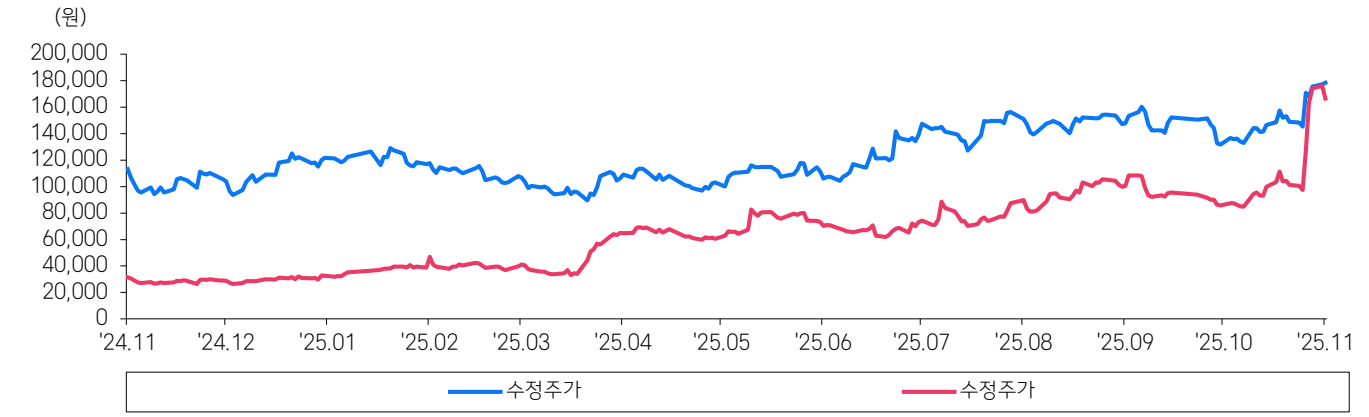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경쟁사 동향

기업명	국가	주요 서비스	상장 여부	시가총액 (억원)	매출액 (억원)	영업이익 (억원)
리가켐바이오	한국	리가켐바이오는 링커, 페이로드 중심 ADC 플랫폼 기업으로, 한국 기업 중 ADC 핵심 원천기술 보유 역량이 강한 기업에 속함. ConjuALL 플랫폼은 균일한 DAR, 높은 혈중 안정성, 세포 내 선택적 절단성이 특징. 초고효력 PBD 계열과 MMAE/MMAF, Topo-I 계열 등 다양한 페이로드 포트폴리오 자체 개발 및 내재화. 글로벌/국내 파트너의 항체와 자사의 링커, 페이로드를 결합해 ADC를 공동 개발하고 라이선스 아웃하는 사업 구조 중심. ROR1, HER2, B7-H3 등 다양한 타깃의 ADC를 개발 중	코스닥	65,439	1,259	-209
에이비엘바이오	한국	에이비엘바이오는 이중 항체와 BBB 셔틀 플랫폼을 중심으로 기술 기반 사업 모델을 보유한 회사. 회사의 이중 항체 기술은 다양한 모달리티에 적용 가능하며, 단일 항체 대비 우수한 타깃 선택성과 기능성을 확보. Grabody-B 플랫폼은 BBB 셔틀 플랫폼으로, 퇴행성 뇌질환 영역에서 GSK와의 기술 이전에 성공. 11월 일라이 릴리와 대형 딜 및 지분투자 유치로 모달리티 추가 확장 가능성 제시. 플랫폼 기업으로서 활용 가능한 기술적인 옵션을 제공, 기술 검증을 해나가고 있는 기업	코스닥	91,839	334	-593

참고: 시가총액은 '25년 11월 18일 기준;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2024년도 기준
자료: Dart, 삼성증권

경쟁사 주가 비교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5년 11월 20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5년 11월 20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